

즉시 배포  
2006년 3월 23일

## 기간시설 투자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맥퀀티 정부 2006 년도 예산 대중교통, 도로 및 교량에 12 억 달러 신규투자, 2005-06 년도 적자 14 억 달러로 감소

퀀즈파크 - 맥퀀티 정부의 세 번째 예산은 기간시설 투자,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지속적 증강,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 해소를 통해 온타리오 주의 경제력을 한층더 증진시킨다.

드와이트 덩컨 온타리오 주 재무장관은, “빠르고 확실하며 안전한 수송은 우리의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. 도로, 교량 및 대중교통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돼서 매우 자랑스러우며, 이는 모든 온타리오 주 주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. 기간시설 적자를 해소하고, 보건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한층더 가속하고, 경제를 강화하고, 새로운 일자리와 번영을 창출함으로써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예산의 골자”라고 밝혔다.

신설 세금이나 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 2006 년도 예산에 따르면 2005-06 년도 예상 잠정적자는 14 억 달러로서, 이는 2003-04 년도에 전 정부가 남긴 적자 55 억 달러에서 75% 감소된 금액이다. 정부는 늦어도 2008-09 년도까지는 균형예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.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, 적자 완전해소 시기가 1 년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.

맥퀀티 정부는 *Move Ontario*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온타리오 주 대중교통과 지방도로 및 교량에 12 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며,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.

- 지방자치체 도로 및 교량에 4 억 달러(주로 토론토광역시 외곽의 지방 및 북부지역에 치중)
- 토론토 및 요크 지역 지하철을 7 번 간선도로(Hwy 7)상의 Vaughan Corporate Centre 까지 연장하는 데 6 억 7 천만 달러
- Brampton AcceleRide 프로젝트에 따라 브램튼에 익스프레스 대중교통 서비스를 신설하는 데 9 천 5 백만 달러
- 미시사가에 별도의 우선통행 버스(정류장 14 개), Mississauga Transitway 를 설치하는 데 6 천 5 백만 달러

“2005 년도에 우리 온타리오 주 경제는 민간부문 및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어 잉여수입을 기록했다. 우리는 이 수입의 60% 이상을 수송시설에 투자하기로 전략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”고 덩컨 장관은 말했다.

맥퀀티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서, 2009-10 년도까지 대학교육의 문호와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62 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점진투자를 한다는 ‘더 높은 목표를 향해(Reaching Higher)’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. 이번 예산의 대학교육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- 2 인 자녀 가정에 대한 가구소득 상한선을 약 3 만 5 천 달러에서 7 만 5 천 달러로 두 배 이상 높임으로써 중산층 가정에 대한 학비 보조 혜택의 폭을 대폭 늘림
- 학비 보조 수혜 학생수를 2005-06 년도의 3 만 2 천 명에서 2006-07 년도에는 6 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림

- 학자금 융자액이 연간(완전이수 학년 기준) 7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채무 부담을 줄임
- 1980년대 중반 이후 최초로 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지원금을 늘려 13만 8천 명에게 혜택을 줌

2006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보건, 교육, 기술훈련, 연구, 취약 주민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계속한다. 맥킨티 정부의 2006년도 예산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.

- 2007-08년도까지 가정의료진(Family Health Team)을 150개로 증설하고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, 2006-07년도에 보건 분야에 19억 달러 추가 투자
- 1형 당뇨병 아동환자 6,500명을 위한 인슐린 펌프 등 의약품 구매에 2006-07년도에 1천 2백만 달러 지원(2008-09년도에는 3천만 달러로 증액)
- 50-74세의 여성을 위한 유방 검사 시설 증설
- 교육청에 대한 학생지원보조금을 2006-07학년도에 173억 달러로 증액(전년도 대비 4억 달러 증가)
- 기술훈련 및 취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1억 달러를 투자하여 직업및기술 재개발계획(Jobs and Skills Renewal Strategy) 신설
- 5개년간 각종 연구, 상업화 및 지원 프로그램에 약 17억 달러 투자
- 불우 청소년, 취약 성인 및 가정을 돕기 위해 2006-07년도에 2억 1천 8백만 달러 추가 지원

덩컨 장관은, “모든 온타리오 주 주민을 위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. 온타리오 주 주민 모두가 성공할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200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온타리오 주에 약 2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. 온타리오 주 경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는, 경쟁력 있는 세율과 기업환경을 유지함으로써 투자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. 2006년도 예산은 자본세 인하 추진안을 제시하고 있다. 2007년 1월 1일자로 현재 세율에서 5% 인하할 계획이며, 이는 당초 계획보다 만 2년 앞당겨진 것이다. 더 나아가 정부는 주 재정상태가 양호할 경우 2010년에 자본세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.

“맥킨티 정부의 계획은 온타리오 주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. 그동안 일자리가 늘었고, 적자가 줄었고, 학급당 학생수가 줄었고, 주요 의료 분야의 환자 대기시간이 단축되었으며, 대학교육의 문호가 점점 더 확대되고 비용이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다.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건실한 주 재정 관리에 힘을 쏟는 한편 보건, 교육 및 기간시설에 대한 주요 투자를 통해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”이라고 덩컨 장관은 덧붙였다.

-30-

연락처:

Sean Hamilton  
Minister's Office  
416-325-8679

Scott Blodgett  
Ministry of Finance  
416-325-0324

Korean